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조경완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데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보자니 한미다 안 할 수 없다. 공천(公薦)이란 게 뭔가. 정당이 선거의 후보를 공적으로 추천하는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후보자를 가진 정당이려면 본디 공천이란 필요 없다. 정당의 주체로서 각 지구당의 당원이 후보를 배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 투표가 됐건 추대가 됐건 외부인사 영입이 됐건 우리 지역에선 이사람을 후보로 내세웁니다 하면 그 자체가 최고의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중앙당이 나서서 특정인물을 굳이 추천할 이유가 없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공천 '외부발주'한 민주당

그러나 그건 이상론이다. 현실은 너무 다르다. 정치적 신조의 실현을 위해 정당 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은 극소수인데다, 각 정당의 지구당이던 것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구당에 후

보선출을 맡겼다면 매수와 협박에 능한 불합당이 뿔하기 십상이다. 그런데다가 중앙당이라는 조직조차도 이합집산이 다반사 일인데 하물며 지구당 조직은 멸실되다시피 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호남유권자는 선택권을 뺏겼다

때문에 정당이, 혹은 정당의 크고작은 보스들이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건 자연스런 전통이 되어 버렸다. 정치인의 생사 여탈권과 다름없는 공천권의 행사는 한국 정당들의 강력한 권력장치가 된 것이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은 이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처지가 못했다. 대통령선거에서 처참하게 지고난 뒤 신당과 민주당이 합친 게 2월 11일, 총선을 두달도 못남긴 상황인데다 지도부에 공천권을 행사할 '권위(Authority)'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당의 지분을 적당히 계

산해 공천을 했다가 '나뉘먹기'라는 비난을 뒤집어쓸 게 뻔했고 지분협상도 쉽지 않았다.

결국 통합민주당이 택한 건 '외부 발주'였다. 개혁적이고 간간한 인물들을 불러 '안장'을 채워주고 여기에 공천권을 일임한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총선에서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지도부의 책임은 적어진다든 셈이다.

문제는 호남이었다. 지지율이 끈두박질 친 수도권과 충청을 피해 입지자들은 대거 호남에 몰렸다. 호남에서의 공

호남에 대해서 온갖 잡음과 갈등을 생산해가며 공천자를 추려낸 일은 결코 그들이 말하는 '진전'으로 보아주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심위는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의 권리를 빼앗아가버렸기 때문이다.

차라리 공천 안했어야

호남의 유권자들은 공천자 명단에 오른 자기 지역구 후보가 어찌서 이번 총선에서 후보로 선출됐는지 알 지 못했다. 17대 때 의원이 그대로 공천됐다면 그 사람이 왜 다시 출마해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참신한 신인이 공천됐다면 그사람 말고 다른 경쟁자들은 왜 참신하지 않은 건지 알 기회가 없다. 지난 수십년간 그랬듯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 공심위가 내놓은 단일메뉴를 군소리 없이 먹어야 하는 쓰내기 손님이 돼 버렸다.

강력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 서넛을 제외하곤 총선은 이미 끝났다고 꾸념하는 사람이 많다. 총선이 민의의 축제라니 소중환 주권의 행사라니 하는 말은 썰렁 개그다. 통합민주당은 의욕을 갖고 출마한 호남 입지자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놓아두었어야 했다. 2년후 지방선거에선 그럴 수 있으리라.

<편집부국장> kycho@kwangju.co.kr

시설

민주당 호남 '개혁공천' 기대 못미쳤다

통합민주당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호남을 비롯 전국 지역구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공천에 따른 예비후보자들의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이 유난히 치열했던 만큼 탈락자들의 반발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은 총선전국에서 전국의 관심사였다. 지역 주민들은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은 통해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할 것을 기대했다. 전통적 지지기반의 지역 특성상 공천이 당선처벌 인식되는 현실에서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초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 등 급고형 이상 확정자에게 공천 신청조차 불허하며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개혁의지가 갈수록 퇴색하면서 현역의원이 대거 공천을 받는 등 개혁공천에 실패율이 40%를 밑돌았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최종 공천자를 결정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역의원은 인지도가 정치 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론조사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스스로 정치 신인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개혁공천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흡한 개혁공천은 지역 주민들이 완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권이 정치공학에 얽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이 심판을 통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자질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다.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공천심사위의 결정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라고 하지만 탈락자들이 심사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 새로운 선거문화의 창출은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몽구 회장 현장경영 노사 화합 계기되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발 빠른 현장경영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정 회장은 17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어 18일에는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하는 등 이를 연속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 갔다. 정 회장의 극히 이례적인 현장경영은 이날 말 시작될 임·단합을 앞두고 현장 노조 분위기가 과약하는 한편 노사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정 회장의 현장경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막대한 비중 때문이다. 광주공장은 광주지역 총 생산의 26%,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산업의 환경은 밝지만은 않다.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수입차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도 국내 자동차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경쟁력 제고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노사 관계의 대전한 없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정 회장은 광주공장 방문에서 근로자들에게 "AM(프로젝트명)을 스포티지, 뉴카렌스와 함께 전략 차종으로 육성, 광주공장을 글로벌 일부공장으로 육성하겠다"며 "품질과 생산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이 고품질과 생산성을 강조한 것은 인성적인 노사관계를 주문한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성공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생산·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광주공장이 일부공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 회장의 현장경영이 노사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오피니칼럼

김병인



이번 18대 총선은 10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 직후에 치러지는 만큼 과거 어느 총선 때보다 역사적, 시대적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정권교체를 이룬지 4개월, 취임 40여 일 만에 재평가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정권을 빼앗긴 진보진영의 재기 가능성, 호남인의 새로운 활로 모색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민주당 공천도 분당과 국정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386 탄돌이'들이 대체로 살아났고, 호남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예산처장관,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종량급 인사들이 대거 몰렸지만 물갈이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공천을 해놓은 것은, 호남인의 새로운 활로 모색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호남의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물갈이론과 인물론을 주장하다가 막판에는 극도의 슬럼프 현상을 보여왔다. 이번 총선에는 호남 유권자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떠나서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보를 지지해야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민주정치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선거가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경정보대학 교수·2006년 4월 수상자>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진보=무능력'으로 인식되면서 진보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진보세력과 민주화운동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따라서 호남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유능한 개혁세력의 분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활동 방향과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인위적 물갈이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으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물갈이 공천은 빼내는 물보다 어떤 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동안 총선 때마다 되풀이된 물갈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물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피니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오피니' 수상자들의 모임인 '오피니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착오 진입 주의해야

지난해 12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가 개통됐다. 통행료 지불을 위해 멈출 필요가 없어 고속도로 이용에 그만큼 편리함이 더해져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이패스차로로 잘못 진입 했다면 후진하지 말고 직진으로 차로를 빠져나온 다음 영업소 근무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로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길 되도록 하자.

▲국성야·함평군 함평읍

기고

김봉수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16회째인 올해는 '위생(Sanitation)'을 주제로 열린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 자궁의 양수 속에서 열 달 동안 지내다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우리는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사회 전반의 물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주암

노후화로 신규 재설치 공사를 시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상류 유역의 탁수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탁수발생 취약지 사전점검을 통한 관리대장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수질관리에 주암댐관리단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암댐에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오염원이 급격하게 유입돼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주암댐관리단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황토살포기 가동, 조류분석 모니터링 강화, 조류제거선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큰 기

생명을 위한 물! 함께 보전하자

여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마음 편히 물을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적인 이유, 지역 개발 욕구, 댐 상류지역의 오염원 등으로 물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번 오염된 물을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주암댐관리단은 유역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질개선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등 댐내와 상류 유역권을 통합한 종합적인 수질관리 대책으로 시민들에게 상수기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주암호의 수질을 잘 보전해 우리는 물론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주민,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많은 바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향사는 중구의 사막지대화에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운들 의미가 없다. 물론 중국 당국이 원인 제공자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북한, 일본도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한·중·일 협력... 황사 원인 사막에 나무를 심자

향사는 중구의 사막지대화에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운들 의미가 없다. 물론 중국 당국이 원인 제공자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북한, 일본도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향사는 중구의 사막지대화에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운들 의미가 없다. 물론 중국 당국이 원인 제공자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북한, 일본도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향사는 중구의 사막지대화에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운들 의미가 없다. 물론 중국 당국이 원인 제공자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북한, 일본도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향사는 중구의 사막지대화에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운들 의미가 없다. 물론 중국 당국이 원인 제공자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북한, 일본도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향사는 중구의 사막지대화에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운들 의미가 없다. 물론 중국 당국이 원인 제공자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북한, 일본도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無等鼓

'마침내 흑인이 세계 정치의 중심인 백악관을 차지하는 날이 밝아오는 것일까.' 백악 오바마 미 상원의원이 미시시피주를 비롯한 각 주 예비선거에서 승리 경쟁자이 힐러리 클린턴 의원의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 격차를 더욱 벌려가고 있다.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는 아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2천25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첫 흑인이라는 기록을 남기는데 만족해야 했다.

네번째 도전자는 작가 출신인 앨런 키스 레이건 행정부에 몸을 담았던 그는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공화당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참패했다. 2004년 대통령을 배출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백악관 문을 두드렸던 흑인 지도자는 오바마까지 모두 7명. 가장 먼저 백악관 도전에 나섰던 흑인은 쉐리치 총선 전 연방 하원의원으로 여성이었다. 뉴욕주 교사 출신인 그녀는 지난 1972년 민주당 대권경쟁에 나섰지만 첫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첫 흑인이라는 기록을 남기는데 만족해야 했다.

네번째 도전자는 작가 출신인 앨런 키스 레이건 행정부에 몸을 담았던 그는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공화당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참패했다. 2004년 대통령을 배출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백악관 문을 두드렸던 흑인 지도자는 오바마까지 모두 7명. 가장 먼저 백악관 도전에 나섰던 흑인은 쉐리치 총선 전 연방 하원의원으로 여성이었다. 뉴욕주 교사 출신인 그녀는 지난 1972년 민주당 대권경쟁에 나섰지만 첫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첫 흑인이라는 기록을 남기는데 만족해야 했다.

네번째 도전자는 작가 출신인 앨런 키스 레이건 행정부에 몸을 담았던 그는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공화당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참패했다. 2004년 대통령을 배출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